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이야기

‘블랙아웃’ 대비 전기시설 개선

시설관리팀은 지난 11월 27일 전기설비의 정전사태를 대비해 기존 특고압반 교체와 신설 특고압반을 설치하는 이중화 공사를 실시했다. 이번 전기설비 개선공사로 내부 전기사고로 인한 대규모 정전사고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대규모 정전과 같은 내부 재난에 대비한 비상상황실 운영과 비상연락망 가동, 환자이송계획 마련, 비상시 전원 우선공급체계(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승강기 등)를 갖추게 됐다. 무엇보다 큰 성과는 단계별 행동절차를 마련해 정전 시에도 진료에 차질이 없이 안전하게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완벽한 병원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이다. 시설관리팀 담당자는 “앞으로 여러가지 시설적인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원내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찾아 개선함으로써 안전한 병원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의료원 경영진단 연구용역 중간발표회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8월 의료원 경영진단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각 분야별 중간보고 발표회를 실시했다. 착수 시점부터 본원이 가진 장점과 현재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 많은 구성원들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의견을 개진해 왔다. 중간발표회는 현재까지 분석된 객관화된 자료를 구성원과 공유함은 물론 발표에 따른 이해도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며, 의료원 및 의학계열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이번 프로젝트는 다음 해 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중대 사자암 해량스님 본원에 불교도서 300권 기증

월정사 중대 사자암 해량 스님과 도서출판 모과나무는 지난 11월 28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환우 및 신도를 위한 불교 도서 300권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태석기 의료원장, 원내 지도법사 증휘 스님과 감원 해량 스님, 모과나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가피’, ‘천년의 성지 천년의 가피’, ‘다녀왔습니다’ 등 각 100권씩 총 300권이 기증됐다. 이날 기증된 불서는 원내 법당을 통해 환우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스마트 Tip⁺

2016년 연말정산 준비, 시작해요!

연말정산 준비를 위한 확인사항으로 지난 호에 이어 과다공제 유형 및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요건 중점 확인사항〉

- 하나. 신용카드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및 맞벌이 부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중복 공제 불가
- 둘. 연금저축
 - 개인연금저축을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 불가
 -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불가
 -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납입액 세액공제 불가
- 셋. 보험료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세액 공제 불가
- 넷. 의료비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부양하는 1인의 지출액만 공제가능)
- 다섯. 교육비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대학원은 본인만 가능)
- 여섯. 기부금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은 세액 공제 불가